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227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25,31-4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25,31-46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먼저 떠올렸으면 합니다.

한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찾아가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소년은 곧 돈의 시민이 되었는데 리무진(귀빈을 모시는 큰 승용차)에서 내리는 멋진 남자에게 돈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이름은 권력이야!' 내가 눈 한번 찡긋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그 즉시 소년은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선거에서 패한 권력은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내들에게 붙들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권력도 다 소용없지!' 소년은 다시 건강을 왕으로 모셨는데 죽음이 나타나자 건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 세상의 왕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죽음을 따라 장례식에 간 소년은 깜짝 놀랄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 가운데에는 십자가상 예수님이 보였고 그 때 소년이 외쳤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구나!'

사람은 유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요. 그런데 자신이 택한 참된 가치와 행복이 다만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도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은 그의 죽음 앞에서 무가치하고 오히려 불행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사라질 세상에 살면서도 참된 것과 영원한 행복을 간직하며 사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한 백성입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온 가치와 행복의 열매를 셈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최고의 가치와 행복으로 삼으며 쫓아 살아온 사람이라면 내놓을 것이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놓을 것이 없어 그 나라에서 스스로 뒤로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셈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수원교구 1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여 위령의 의미를 몸소 실천합시다.

※ 11월 27일 주일부터 2011년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와 희생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하루 하루를 채우는 뜻 깊은 대림시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활용합시다. 이 과정은 소공동체 모임에서 매달 정해진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문제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좀 더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구석구석에 뿌려 좋은 열매 맺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17,1-22,19

◈ 성경 퀴즈

***창세기 17,1-27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아브람의 나이가 (　　)이 되었을 때, (　　)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2.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　　)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　　)이다.
3. 할례에 대해 서술하시오.

4. 하느님이 지으신 사라이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창세기 18,1-15, 21,1-7, 22,1-19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 아브라함이 주님의 세 천사들에게 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6.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　　)이라 하였다.
7.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　　)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　　)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8. 얘야, 번제물로 바칠 (　　)은 (　　) 마련하실 거란다.
9. ‘야훼 이레’에 대해 설명하시오.

***창세기 18,16-33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브라함 :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　　)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님 :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 : 의인 (　　) 모자란다면…
주님 : (　　)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 : 혹시 그곳에서 (　　)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 그 (　　)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 혹시 그곳에서 (　　)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 내가 그곳에서 (　　)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 (　　)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 (　　)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도전 문제**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칠 양'이 어디 있냐는 어린 아들 이사악의 질문에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Agnus Dei)' 즉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며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예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9-34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창세기 18장 16-33절의 이야기는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얼마나 하느님이 인내로 그들을 용서하시려 애쓰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인내하시며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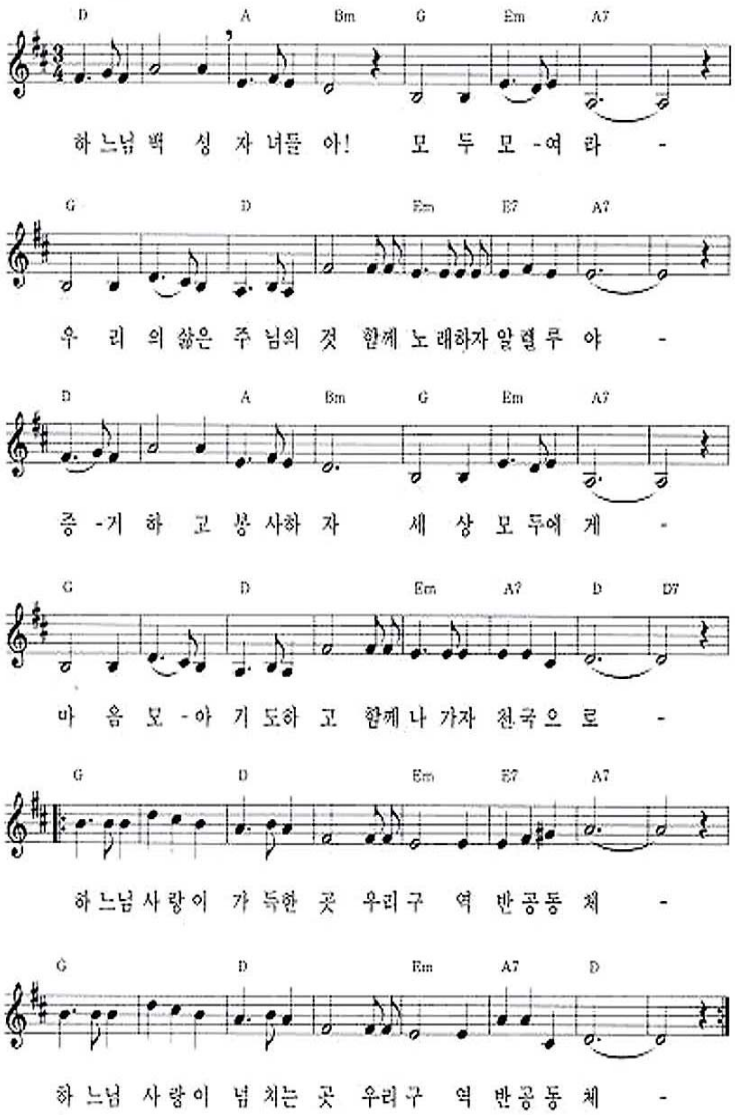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